

전남대병원, 파업으로 의료공백 현실화

인력 충원·정규직 전환·휴가 등 3개안 이견 못 좁혀 외래 진료 등 차질... 퇴직자 등 대체인력 투입 검토

전남대학교병원이 노조 파업 일주일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노조는 병원 정상화를 위해 파업 이후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좁혀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노사는 18일 현재까지 임금 인상을 포함한 약 30여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핵심쟁점 사항이 된 인력충원·휴가·용역직의 직접고용 등 3개 사항은 교착 상태에 있다.

노조는 현재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인원으로 42명,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른 49명을 충원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병원은 부족인력 11명과 주 52시간 상한제 20여명을 제시했다.

병원측은 인력충원에 있어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조가 제안한 의견을 한 번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제안한 안을 수용하면 연간 추가 부담 인건비가 55억원으로, 병원안의 인건비 20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측은 현행 유급 생리휴가에 더해 감정노동휴가(3일)·교대근무자 적치휴가(7일)·자녀돌봄휴가(2일) 등 특별휴가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현재 국립대병원 중 경상대병원과 함께 두 곳만이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조안에 따라 특별휴가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원은 감정노동휴가 12억2천940만원, 가족돌봄휴가 8억1천960만원(이상 3천415명 대상), 교대근무자 적치휴가 13억8천600만원(1천100명 대상)으로 34억3천500만원에 달하며, 여기에 유급생리휴가(2천683명 대상) 38억6천352만원까지 더하면 총 73

억원대에 이르게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한 청소·주차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병원측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자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안인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자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천900여명(전체 직원 3천여명) 가운데 간호·원무직 등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부서

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하는 격리병동(7동)도 정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래 진료, 지원 업무 등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병원 측은 근무자들의 피로도를 고려,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병원을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노조와 더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오몰떡 조물떡 송편 만들기 광주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서구 다문화지원센터 학부모와 어린이들 40여명과 함께 '오몰떡 조물떡 송편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제공

오늘의 날씨

광주	☁	18~26
나주	☁	17~26
장성	☁	16~25
담양	☁	17~26
화순	☁	17~26
영광	☁	17~26
함평	☁	18~27
목포	☁	19~25
무안	☁	18~26
영암	☁	17~27
진도	☁	18~26
신안	☁	18~25
순천	☁	19~28
광양	☁	20~27
구례	☁	17~26
곡성	☁	16~26
완도	☁	19~26
강진	☁	18~27
장흥	☁	18~27
해남	☁	18~27
여수	☁	21~25
보성	☁	16~26

☀ 해돋이 06:18 🌙 달뜨기 15:13
 🌅 해질 18:34 🌄 달지기 00:40

서구 주민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 받아 광주고법 화해권고 결정... 주민 4천654명, 평균 296만원

광주 군 공항 인근 일부 서구 주민들이 이 광산구 주민에 이어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서구 마북동, 서창동, 치병동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판결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민사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을 받는 주민은 소

음도 85데시벨(WCE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4천654명이며, 배상금은 총 137억6천만원이다.

1인당 평균 297만원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주민과 정부 양측이 이날까지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3만2천여명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규진 기자 jin2001@

광주 남구 홍보인력채용 추진... 노조 반발

공무원노조 "민원부서 인력난 외면"... 구청 "다른구청과 비교하면 인력 부족"

광주 남구가 구청 홍보 분야 임기제 직원 채용에 나서자 공무원노조가 '민원·현업부서 인력난 외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남구는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내고 6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일반임기제 8급 등 기획실 소속 직원 2명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구청 소식지 제작 업무를 수행하

는 전문인력으로 1주일에 각각 35시간(나급)과 40시간(8급) 일한다.

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청 측은 구보제작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전문성은 키우고자 채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

역본부 남구지부는 성명을 내 "구보제작은 현상유지면 충분하다"며 "직원들 의견수렴과 내부토론으로 내린 결론은 1명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원과 현업부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데도 정원 1명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외면받고 있다"며 "임기제 직원 2명 인건비는 신규인력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라고 꼬집었다. 남구 관계자는 "광주의 다른 구청과 달리 전담조직 없이 직원 혼자서 구보제작과 여러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외부인력으로 충원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채용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인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보제작 분야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규진 기자 jin2001@

기사제보 227-0000

조선대병원, 결핵관리 '우수 기관상' 수상

조선대병원은 최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8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 환자를 관리해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단에서 결핵강좌 개최 및 만족도 결과,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인당 신고환

자 수 통계 및 기관 내 결핵관리지표 등 전반적인 현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조선대병원 호흡기내과 윤성호 교수는 "과거 7.80년대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치던 결핵은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다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병원으로 선정된 만큼, 광주는 물론 전남권역을 대표하는 우수병원으로서 결핵관리 및 치료율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unshine GWANGYANG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_광양